

연령, 성별, 사회측정적지위에 따른 아동의 자기능력지각과 부모의 책임지각

Perceived Competence of Children and Perception of Responsibilities of Parents Based on Age, Sex, Sociometric Status

경희대학교 아동주거학과
박사과정 이진화
동아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가정관리학과
교수 전경숙

Dept. of Housing, Child & Family Studies, Kyunghee University

Doctoral Course : Jin Hwa Lee

Dept. Home Management Dong-A University.

Prof. : Kyeung Sook Jean

〈목 차〉

I. 서론	IV. 결과 및 해석
II. 이론적 배경	V. 논의 및 제언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 difference based on age, sex, sociometric status for perceived competence of children and difference about perception of responsibilities degree of parents of these children. The content of study as follows.

1. How is the difference about perceived competence of children based on age, sex, sociometric status.
2. How is the difference about perception of responsibilities of children based on age, sex, sociometric status.
3. How is the relationship between father and mother.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children and their parents of 126 persons of the third grade, sixth grade of S elementary school, the second grade of S middle school, the second grade of S girls' middle school which are located in Pusan city. This study used a peer nomination among sociometric assessment method as sociometry assessment

means, 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 of Harter(1985) as perceived competence assessment means of children and used 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 which amends fits for parents. The collected data are managed by SPSS/PC+ program. We analyze three-way ANOVA to verify study question No. one, two, analyze t-verification and Pearson's product moment correlations to verify study question No. three.

The result of this study as follows.

First, in investigating difference about perceived competence of children based on age, sex, sociometric status, we can see that children perceive high, self-ability for low ages. Also, boys than girls, popular children than rejected children, neglected children perceive high self-ability.

Second, in investigating difference about perception of responsibilities of children based on age, sex, sociometric status, we can see that mother perceive responsibilities in learning sphere, exercise sphere, the whole self-value sphere and father perceive responsibility only in social sphere.

Third, in investigating relation between perception of responsibilities of father and mother, this shows that difference between perception of responsibilities of father and mother is not showed and have (+) interrelation of $r=.46(P<.001)$ between perception of responsibilities of father and perception of responsibilities of mother.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자아의 문제가 심리학에서 제기된 것은 1890년에 William James로 부터 유래되었다. James가 자아(ego), 자기(self)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이론적 체계를 시도함에 따라 자아개념 연구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최근에는 아동이 자신의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지각하는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또래관계에 대한 아동의 자아지각을 평가하는 몇가지 자기 보고식 척도가 개발되었는데, 그 중 하나가 Harter(1982)가 개발한 지각된 능력에 대한 자기 보고식 척도(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이다.

또래는 아동의 성격, 사회적행동, 가치관 및 태도를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된다. 또한 또래들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아동들의 자아개념 발달에도 관여하게 되며, 또래와의 비교에서 이루어지는 자기 평가가 아동들의 자아개념 형성에도 관건적

역할을 한다. 그런데 학급집단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은 다른 어느 집단에서 가지는 그것보다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급우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된 학생, 즉 인기학생들은 타인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내적 확실성 때문에 자기자신을 가치있게 생각하고, 자신에게 만족하며, 대체로 긍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게 되는 반면, 선택을 받지 못한 학생, 곧 배척된 학생들은 급우로부터 회피를 당하거나 따돌림을 받고 있다는 의식으로 인해 부정적인 자아개념이 형성되고, 또 부적응 행동을 하게 되는 결과, 학급집단으로부터 이탈되어 가정이나 학교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학생들이 학급집단에서 어떠한 지위를 가질 수 있는가에 따라서 개인의 성장과 발달이 어느 정도는 좌우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집단의 구조는 주로 사회성 측정법(sociometric test)에 의해서 밝혀질 수 있다. 사회성 측정법은 집단 구성원간의 인기유무를 측정해서 집단에서 개인의 수용여부, 집단의 사회적 구조를 발견하고 평가하는 방법이다.

한편 아동에게 있어서 중요한 타인으로는 아버지, 어머니, 그의 가족, 교사, 또래 및 주변의 성인들이 열거되는데, 이들 중 아동이 생후 최초의 관계를 형성하여 가장 오래, 가장 많은 접촉을 하게 되는 부모가 제일 중요한 주변 인물이라 할 수 있다.

Adams와 Davis(1978)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지니는 자녀양육에 대한 태도를 중시하였는데, 부모가 좋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려면 부모 역할의 중요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가 변수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Gilbert와 Hanson, 그리고 Davis(1983)도 이 의견을 뒷받침하여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의식을 공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였는데, 이들은 “부모가 지니는 부모역할에 대한 책임의식”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여, 여러 연구를 통하여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는 것이 자녀의 성장, 발달을 위해서 중요하다는 것을 부모들에게 인식시키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부모의 책임의식(parental responsibilities)”에 대한 개념이 아직 생소하며, 이에 관한 연구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학급내에서의 아동들의 사회측정적 지위를 알아 보고 그 아동들이 자신의 능력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교육적 측면에서 도움이 되며, 또한 그들의 부모들이 어떻게 책임을 지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부모-자녀 관계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의 자기능력지각이 아동의 연령, 성별, 사회측정적 지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고, 또 이런 아동들의 부모들이 책임을 지각하는 정도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 보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연령, 성별, 사회측정적지위에 따른 아동의 자기능력지각과 부모의 책임지각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1) 아동의 연령, 성별, 사회측정적지위에 따라 아동의 자기능력지각은 차이가 있는가?
- 2) 아동의 연령, 성별, 사회측정적지위에 따라 부모의 책임지각은 차이가 있는가?
- 3) 부, 모의 책임지각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3.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사회측정적지위 : 아동이 집단내에서 수용되는 정도를 나타낸 것

본 연구에서는 인기가, 배척아, 고립아로 나누었다.

2) 자기능력지각 : 개인이 자신의 능력적 수행을 스스로 평가하는 자기 평가과정. 즉, 생의 각각 상이한 영역을 다루어 내는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지각하는 것을 뜻한다.

3) 부모의 책임지각 : 자녀의 능력적 수행에 대해 부모가 지각하는 부모역할에 대한 책임정도

II. 이론적 배경

1. 아동의 연령, 성별, 사회 측정적지위와 자기 능력지각

자아를 정의하는 속성과 개념적으로 조직된 정도 및 자아를 정의하는 기준은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아동의 인지발달과 사회화 경험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아동은 인지 발달 및 사회화 과정을 통해 점차적으로 자아개념을 구성해 나간다. 또한 아동의 성숙에 따른 인지 발달 수준과 부모, 또래 등 중요한 타자와의 관계가 아동의 자아기술(self-description)에 영향을 주게 된다(Harter, 1988).

Ruble(1983)에 의하면 7세 이하의 어린 아동들은 다른 아동들의 수행에 관한 정보를 참조하지 않으며 그들이 외성한 과업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는 반면에 7세이상의 아동들은 그들의 수행을 다른 아동의 수행과 비교를 하는, 즉 사회적인 비교하에서 자기를

평가하였다. 그리고 아동이 약 9세가 되면 비로소 자신의 역량을 판단할 목적으로 사회적인 비교를 한다고 하였다.

한편 Nicholls(1978)등은 국민학교 2학년 이전의 아동들은 자신의 능력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수행할 수 있는 과업의 난이도를 생각하지 않으며, 어려운 과업이 쉬운 과업보다 더 큰 노력과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2학년 이후가 되면 비로소 아동들의 판단은 그들이 수행할 수 있는 과제의 어려운 정도와 친구의 수행을 비교해서 조정한다고 하였다.

인간은 자신의 능력을 평가하고 싶은 욕구를 지녔기 때문에(Festinger, 1954) 사회적인 비교과정에서 자신과 타인의 능력을 비교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동은 또래와의 공통적인 성격이라든지, 유사점, 차이점을 발견하게 된다.

Stipeck(1981)은 유치원 아동~3학년 아동에 대한 자신과 또래의 능력평가를 하도록 한 결과 2, 3학년에야 비로소 아동들의 능력평가가 교사나 또래들의 평가와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자신보다 또래에 대해 더욱 일찍이 정확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는데 이와같은 아동의 또래능력 판단의 정확성, 즉 아동평가와 교사평가의 일치도는 연령과 함께 증가했다. 다시 말해서 어린 아동들은 대체로 자신의 능력에 대해 또래보다 높게 평가하다가 점차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신에 대한 평가가 낮추어지며 자신과 또래간의 차이도 줄어들었다고 한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볼 때 7, 8세 이전 아동들은 자신의 능력에 대해 사회적인 비교정보에 소홀하다가 7, 8세 이후에야 또래의 태도, 행동을 판단하고 이해하여 정확하게 예언할 수 있게 된다.

한편, Harter(1985)의 국민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문적능력, 사회적능력, 신체적능력과 행동적능력, 전반적인 자아가치에서는 성차가 발견되지 않았고 다만 운동적능력에서만 성차가 나타났다. 즉 남자아동이 운동적능력에서 여자아동보다 자신의 능력을 높이 지각하였는데, 그는 이러한 차이를 필연적으로 보았다.

714명의 5학년 중국아동을 대상으로 한 Stigler,

Smith와 MaO(1985)의 연구에서 남자아동이 운동적 능력과 전반적인 자아가치에서 여자아동보다 자신의 능력을 높게 지각하였다.

Ford(1982)의 연구에서 사회적능력이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여자아동이 남자아동보다 사회적능력이 높았다.

Marsh, Smith와 Barnes(1985)의 5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다차원적 자아개념에서의 성차를 연구한 결과 여자아동이 신체적능력과 외모분야에서 남자아동보다 낮은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Meece, Parsons, Kaczala, Goff와 Futeman(1985)은 자아개념에 관한 문헌들을 재검토해서 성차를 밝혔는데 국민학교 과정에서는 성취나 자아개념에 있어서 성차가 크지 않지만, 중, 고등학교 시절에는 자아개념은 중,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여자아동이 남자아동보다 더 빠르고 크게 감소한다고 하였다.

개인의 사회적 특성은 그가 속한 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그중에서도 또래집단으로부터 얼마나 수용되고 또는 거부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개인의 사회성을 나타내는 한 지표가 될 수 있다.

또래집단에서 아동의 인기도나 사회적 지위를 측정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사회성 측정 방법이다.

가장 일반적인 사회성 측정 방법은 또래지명법이다. 이것은 어떤 기준에 적합한 친구의 이름을 지적하게 하는 방법으로 긍정적인 기준(가장 좋아하는 세아동의 이름)과 부정적인 기준(좋아하지 않는 세아동의 이름)이 함께 사용되는 것이다. 또래지명법은 선택되지 않은 대부분의 아동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단점이 있으므로 이런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학급명단 평정척도가 있다.

한편 또래 집단내의 사회적 지위와 자아지각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지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또래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이 부정적 자아지각 패턴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즉 이들은 자아 효능성, 자아 존중감, 지각된 사회적 능률성에 있어서 다른 아동보다 낮다

고 한다(Harter, 1982 ; Hymel, & Rubin, 1985).

Boivin과 Bégin(1989)은 9-11세 아동을 대상으로 또래지위와 사회적 능률성에 대한 자아 및 교사의 지각간의 관계를 Harter(1982)의 척도를 사용하여 연구하였다. 그 결과 인기아는 긍정적인 자아지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고, 무시된 아동의 자아지각은 학업능력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평균지위의 아동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거부된 아동의 경우, 이들 아동 모두가 부정적인 자아지각을 보이는 것은 아니었다. 즉, 거부된 아동의 자아지각 점수를 군집분석한 결과, 거부된 집단은 두가지 하위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었는데 거부된 집단 중 한 군집은 자신의 능력을 부정적으로 지각하였으나 다른 군집은 자신의 능력을 긍정적으로 지각하였다.

Patterson과 그 동료들(1990)은 국민학교 3,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사회적 능률성에 대한 아동의 자아지각과 또래지위와의 관계를 연구하였고, 또한 아동의 주관적인 지각과 외적 준거를 비교하였는데 이는 Boivin과 Bégin(1989)의 결과와 거의 일치하는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즉 인기아는 다른 지위의 아동에 비해 사회적 능력 영역의 점수에서 가장 낮았다. 거부된 아동은 자아지각과 외적준거를 비교해 볼 때, 이들은 대체로 자신의 사회적 능률성을 과대평가 하였다. 특히 거부된 아동 중 공격적인 아동은 외적준거와 비교할 때 자신의 행동 능력을 과대평가하였다.

이상의 관련연구에서 알수 있는 바와 같이 또래 집단내에서의 지위와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능률성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음을 시사받을 수 있다. 또래에게 인기있는 아동은 긍정적인 자아지각을 보인 반면, 무시된 아동은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거나 평균지위의 아동과 유사한 수준의 자아지각을 보이며 거부된 아동은 자신의 능력을 외적 준거보다 높게 평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또래에게 수용되는 아동은 긍정적인 자아지각을 보이지만 또래에게 무시되거나 거부되는 아동들은 자신의 능력에 대해 왜곡된 지각을 하게 된다.

2. 아동의 능력과 부모의 책임

Freud를 비롯하여 현대의 대표적인 심리학자들의 이론은 인간이 한 사람으로서 육성되어 가는 사회화 과정에 있어서 부모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인간은 생물학적 개체로 태어나 부모와 최초로 상호작용을 시작하며, 부모로부터 사랑과 권위를 경험하고, 행동을 모방하고, 그들의 가치관을 내면화 하기 때문에 부모는 아동의 사회화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아동은 출생과 더불어 부모와 지속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성장해 간다. 아동의 성장, 발달은 부모와 아동간의 상호작용 양식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데에서 나타나는 부모의 태도는 가정내의 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아동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부모의 영향은 추후 아동의 인지적, 행동적, 정서적 발달을 좌우함으로써, 아동의 독특한 인성적 특성이 형성된다.

부모는 아동들의 능력, 가치, 특성 등에 대해 그들 나름대로 어떤 감정이나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부모의 태도와 평가는 실제로 유아들에게 반영된다. 부모는 다른 누구보다도 자녀의 행동에 대한 최초의 모델이 되며, 가장 빈번한 접촉과 많은 시간 동안 밀접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므로 자녀의 자아개념 발달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된다.

또한 부모는 자녀의 제반행동에 대해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 평가는 아동에게 자기발견의 기회를 제공해 주어 자신에 대한 생각을 정립하게 되므로 부모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한편, Adams와 Davis(1978)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지니는 자녀양육에 대한 태도를 중시하였는데 부모가 좋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되려면 부모역할의 중요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가 변수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부모역할에 대한 책임의식”에 대해선 Nye(1976) 그리고 Gilbert와 Hanson(1983)의 견해를 들 수 있다. 먼저 Nye는 부모역할에 대한 책임의식을 자녀의 사회화 역할과 자녀양육 역할에 대한 것으로 크게 나누고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적절한 의생활과 식생활 제공,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도록 도와주는 것, 울

고 그런 것에 대한 판단력을 심어주는 것, 책임감을 길러주는 것, 학교공부를 도와주는 것, 자녀를 훈육하는 것, 청결상태를 돌봐주는 것, 따뜻한 애정을 보이는 것, 두려움이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Gilbert와 Hanson도 Nye와 비슷한 견해를 갖고 있으나 이들은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부모역할에 대한 책임의식"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부모역할에 대한 책임의식을 크게 교육적인 면과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해 주는 일, 가족 및 사회와 자녀와의 관계를 돌봐 주는 일에 관한 것으로 분류하고, 그 밑에 13개의 하위 영역을 두었는데 다음과 같다.

인지발달을 도와주는 것, 정서적인 안정감을 심어주는 것, 사회성발달을 도와주는 것, 규범을 가르치고 사회적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 신체적인 발달을 돕는 것, 위생상태를 돌봐주는 것, 생존능력을 길러주는 것, 건강을 관리하는 것, 물리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것, 정서적인 욕구를 다루는 일, 보호 관리를 하는 것, 자녀에게 사회생활에 대한 의식을 심어주는 일, 가족공동체 의식과 가풍을 심어주는 일.

이상과 같은 13영역의 역할들을 자녀양육에 따른 부모의 역할로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부모역할에 대한 책임의식을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Gilbert와 Hanson(1982)은 정의하고 있다. Gilbert와 Hanson 그리고 Davis(1982)가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 200명을 대상으로 인지발달, 정서발달, 사회성발달, 규범과 가치관, 신체발달, 정서관리, 가족생활등 7개 영역에서 부모역할에 대한 책임의식을 측정할 결과, 어머니는 인지발달과 사회성 발달 영역에서는 딸에 대해서, 가족생활 영역에서는 아들에 대해서 책임감을 높게 지각하고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아들과 딸에 대한 차별을 보이지 않는 반면, 아버지는 7개 전영역에 대해서 아들을 더 중요하게 지각하고 있었다.

한편, 직업을 가진 부모들을 대상으로 측정한 Gilbert와 Hanson(1983)의 연구결과에서는 앞서 기술한 13개영역에 대해, 어머니가 대체로 아버지보다 부모역할에 대한 책임의식을 더 높게 지니고 있었는

데, 정서발달, 사회성 발달, 규범과 가치관, 생존력, 건강관리, 정서관리 영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과정에는 부모 나름대로의 사고가 개입되어 있으며, 이것이 행동을 변화하게 한다는 인식이 별로 없었다. 부모의 생각이 어떻게 변화하고 발달하는지, 그 생각의 근원은 무엇인지, 스스로 형성하는 생각인지 아니면 문화적 영향인지, 생각과 행동은 어떻게 연결되는지, 생각과 행동은 어떤 경로를 거쳐 연결되는지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Goodnow, 1988). 최근 사회심리학 분야에서 사회적 인지(social cognition)에 대한 많은 연구가 행해지면서 이 분야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회적 인지란 다른 사람들의 성격이나 심리적 기능을 어떻게 인식하고 알게 되며, 자신과 타인에 대한 개념이 사회적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것이다(Tajiri, 1965). 인간은 누구나 타인의 행동이나 주위의 사건을 보고 그 원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사회인지를 부모-자녀 관계에 연결시켜 생각하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많은 연구 결과가 부모-자녀 관계에는 어떤 인과추론 경로가 있다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Maccoby & Martin, 1983 ; Sigel, 1985 ; Goodnow, 1985 ; Dix & Grusec, 1985 ; Miller, 1988).

Mains(1981)는 그의 연구를 통해서 부모는 아동의 자아상을 만들어 내고 지속시켜 주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는 아동이 갖고 있는 자신에 대한 관심의 수준은 그의 부모들이 그에게 보여준 관심의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1970년대 후반부터 Bell(1979)과 Parke(1978)등은 그동안의 부모-아동 관계 연구의 고찰을 통해 부모의 신념이나 가치 등과 같은 인지적 매개요소(cognitive mediation)가 부모의 양육행동보다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Goodnow(1984)는 부모의 아동에 대한 신념은 부모의 양육실제와 직접 관계되고, 이는 아동의 발달에 연결된다고 하였다.

Coopersmith(1967)에 의하면 아동의 자기에 대한

지각은 개개인의 중요한 타인들 특히 부모의 태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즉 아동이 최초로 접하는 부모태도의 중요성과 부모에 의한 자녀의 수용에 따라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아동의 여러가지 행동의 기초가 되는 자기에 대한 지각의 형성은 가장 기본적인 지속적인 부모-자녀 관계라는 역동적인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Rosenberg(1963)는 “부모의 관심과 아동의 자기능력”이라는 논문을 통해 부모의 관심 자체가 그 관심의 질이 어떠한 형태이든간에 무관심한 태도보다는 자녀의 자기지각을 높여준다고 하였다.

Salter(1962)와 Mote(1967)도 부모의 지지적인 관심이 자녀의 자기 지각발달에 중요하다는 결론에 동의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의 자기에 대한 지각은 자신의 생활경험이나 환경의 영향을 받아 변화하고,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에 대한 지각이 형성되므로 부모자녀관계가 아동의 자기에 대한 지각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시내에 위치한 S국민학교 3학년 4학급, 6학년 4학급, S중학교 2학년 2학급, S여중 2학년 2학급 아동들을 대상으로 사회성측정 검사를 실시하여 각 지위별로 분류된 인기아 42명, 배척아 42명, 고립아 42명으로 총 126명 아동들과 그들의 부모들이다.

2. 측정도구

1) 사회성측정도구

가장 일반적인 사회성측정방법은 또래지명법이다. 이것은 어떤 기준에 적합한 친구의 이름을 적게 하는 방법으로 긍정적인 기준과 부정적인 기준이 함께 사용되는 것이다. Criswell(1939)과 Singleton과 Asher(1979)에 의하면 이 연령의 아동들은 이성의 또래를 좋지않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Van Hasselt, Herben, & Bellack, 1984) 따라서 같은 성의 또래들만을 지명하도록 하여 그 지명받은 수로만 대상아동들의 점수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좋아하는 친구”, “교실에 같이 앉고 싶은 친구”, “생일에 초대하고 싶은 친구”를 각각 3명씩 지명하게 하였다. 또한 각 상황에서 함께하기 싫은 친구도 각각 3명씩 지명하게 하였다.

사회측정적 지위에 따른 아동의 분류는 Coie, et al. (1982)의 분류방법에 의해서 인기아, 배척아, 고립아를 분류하였다.

2) 아동의 자기능력지각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역량에 대한 자기지각을 측정하기 위하여 Harter(1985)의 아동의 자기지각검사(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 : 이하 SPPC라고 함)를 사용하였다. 이 SPPC는 특수영역인 학업영역, 사회적영역, 운동적영역, 신체적영역, 행동적영역과 전반적인 자아가치영역으로 나누어져 있고, 각각의 영역에는 6개의 문항이 있어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1~4점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는데 4점은 역량을 높게 지각하는 것을 말하며 1점은 역량을 낮게 지각하는 것을 말한다. SPSS의 질 문형식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반응을 유도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넓은 범위의 반응을 위해 고안되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오 른 쪽	왼 쪽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학교공부를 잘 해낸다고 생각한다.	나는 학교공부를 제대로 못하는 것 같다.		

었으며, 질문의 형태는 아래에 제시되어 있다.

본 검사의 내적합치도 계수는 .88이었으며, 하위영역별 내적합치도 계수는 .84~.86으로 나타났다.

3) 부모의 책임지각 측정도구

아동능력에 대한 부모의 책임지각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자는 Harter(1985)의 아동용 자기지각검사(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를 부모용으로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아동용 도구와 마찬가지로 특수영역인 학업영역, 사회적영역, 운동적영역, 신체적영역, 행동적영역과 전반적인 자아가치영역으로 나누어져 있고, 각각의 영역에는 6개 문항이 있어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각각의 영역에 있어서 자녀의 능력적 수행에 대해 부모가 지각하는 부모역할에 대한 책임의 정도를 1~4점으로 반응하게 하였고 4점은 책임을 높게 지각하는 것을 말하며, 1점은 책임을 낮게 지각하는 것을 말한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 아이가 학교공부를 잘 해내고, 못해내는 것은 내 책임이다.				

예비조사를 통해 내적합치도 신뢰도를 구한 결과, 총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82$ 였고 각 하위영역들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65 \sim .94$ 의 범위를 이루었다.

3. 연구절차

1) 예비조사

본 조사 실시예 앞서 측정도구의 적절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아동과 부모가 질문지에 답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이해를 잘 못하는 문항에 대해 수정 보완하여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2) 본조사

사회성 측정검사는 각 학급담임의 사전양해와 협조를 얻어 집단구조가 안정성을 띤 6월초에 실시하였다. 본조사는 1993년 9월 13일부터 9월 18일까지 진행되었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주어진 연구문제에 따라 수집된 자료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SPSS/PC+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처리 하였다.

연구문제 1을 검증하기 위하여 아동의 연령, 성별, 사회측정적지위를 독립변수로 두고, 아동의 자기능력지각을 종속변수로 둔, 삼원변량분석을 하였다. 연구문제2를 검증하기 위하여 아동의 연령, 성별, 사회측정적지위를 독립변수로 두고, 어머니의 책임지각을 종속변수로 둔 삼원변량분석과, 아동의 연령, 성별, 사회측정적지위를 독립변수로 두고, 아버지, 어

머니의 책임지각을 종속변수로 둔, 삼원변량분석을 하였다. 연구문제3에 있어서는 아버지의 책임지각과 어머니의 책임지각간의 차이를 보기위해 t검증을 하였고, 아버지의 책임지각과 어머니의 책임지각간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이용한 분석을 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아동의 연령, 성별, 사회측정적지위에 따른 아동의 자기능력지각

아동의 자기능력지각이 아동의 연령, 성별, 사회측정적지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아동의 자기능력지각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제시

〈표 1〉 아동의 자기능력지각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

(N = 126)

사회계층적 지위			인기아(42)		배척아(42)		고립아(42)	
하위영역	연령	성별	M	SD	M	SD	M	SD
학업 영역	국3	남(21)	20.57	3.10	15.00	5.25	15.25	2.76
		여(21)	17.71	2.66	14.88	4.01	14.83	4.00
		계	38.28	5.76	29.88	9.26	30.08	6.76
	국6	남(21)	15.71	3.82	12.86	5.05	16.00	2.77
		여(21)	16.71	3.50	13.14	2.61	15.00	3.21
		계	32.42	7.32	26.00	7.66	31.00	5.98
	중2	남(21)	15.29	2.06	12.29	2.75	13.14	1.95
		여(21)	13.43	2.99	13.43	3.05	13.71	3.15
		계	28.72	5.05	25.72	5.80	26.85	5.10
사회적 영역	국3	남(21)	20.86	2.41	14.67	4.63	17.00	2.20
		여(21)	18.29	1.77	16.00	5.04	15.67	3.46
		계	39.15	4.18	30.67	9.67	32.67	5.66
	국6	남(21)	18.86	4.10	15.57	4.61	19.43	3.74
		여(21)	18.86	1.86	14.43	3.87	13.14	5.15
		계	37.72	5.96	30.00	8.48	32.57	8.89
	중2	남(21)	16.71	.95	16.17	3.73	12.71	2.75
		여(21)	18.00	3.00	14.86	4.02	15.86	2.34
		계	34.71	3.95	31.03	7.75	28.5	5.09
신체적 영역	국3	남(21)	20.00	2.00	13.29	4.15	16.71	5.00
		여(21)	18.29	4.01	13.75	2.88	12.50	2.56
		계	38.29	6.01	27.04	7.03	29.21	7.56
	국6	남(21)	16.86	3.13	13.29	4.15	16.71	5.00
		여(21)	15.00	3.37	13.57	3.31	13.14	2.91
		계	31.86	6.50	26.86	7.46	29.95	7.91
	중2	남(21)	13.43	1.40	15.29	3.59	13.4	3.69
		여(21)	13.71	3.55	12.29	2.93	12.5	3.31
		계	27.14	4.95	27.58	6.52	26.0	7.00
운동적 영역	국3	남(21)	18.29	5.41	17.17	3.71	14.3	4.87
		여(21)	15.71	2.31	16.75	3.46	14.5	3.95
		계	34.00	7.72	33.92	7.17	28.8	8.82
	국6	남(21)	19.29	3.73	16.00	3.74	17.00	3.61
		여(21)	13.29	2.21	14.00	5.26	11.86	3.24
		계	32.58	5.94	30.00	9.00	28.86	6.85
	중2	남(21)	16.57	2.51	15.71	4.11	16.57	2.94
		여(21)	12.57	3.74	14.57	4.83	12.1	2.73
		계	29.14	6.25	30.28	8.94	28.71	5.67

행동적 영역	국3	남(21)	18.14	1.35	14.83	3.60	14.00	2.67
		여(21)	17.43	2.65	14.25	4.61	15.83	2.32
		계	35.57	4.00	29.08	8.21	29.83	4.99
	국6	남(21)	14.43	2.70	14.29	3.64	16.43	2.76
		여(21)	17.57	2.07	15.57	1.27	14.00	2.16
		계	32.00	4.77	29.86	4.91	30.43	4.92
	중2	남(21)	14.86	2.41	14.57	1.99	13.86	2.12
		여(21)	14.00	1.73	14.86	2.41	14.57	3.15
		계	28.86	4.14	29.43	4.40	28.45	5.27
전반적인 자아가치 영역	국3	남(21)	20.43	2.88	16.67	5.85	16.00	1.51
		여(21)	19.29	3.55	17.75	3.20	15.17	2.32
		계	39.72	6.43	34.42	9.05	31.17	3.83
	국6	남(21)	17.57	2.76	16.00	3.21	17.57	3.51
		17.86	17.86	2.41	14.86	2.19	14.86	3.53
		계	35.43	5.17	30.86	5.40	32.43	7.04
	중2	남(21)	13.71	2.56	14.86	2.79	13.86	2.19
		여(21)	14.57	2.57	14.43	2.07	13.86	2.04
		계	28.28	5.13	29.09	4.86	27.72	4.23
전체 영역	국3	남(21)	118.29	7.27	94.50	18.96	91.50	10.70
		여(21)	106.71	23.08	93.38	19.22	88.50	14.60
		계	225.00	30.35	187.88	38.18	180.00	25.30
	국6	남(21)	102.71	14.42	88.00	15.13	103.14	15.88
		여(21)	99.29	4.27	85.57	14.93	82.00	12.65
		계	202.00	18.69	173.57	30.06	185.14	28.53
	중2	남(21)	90.57	4.93	89.43	11.62	83.57	5.50
		여(21)	86.29	12.59	84.43	11.49	82.71	13.41
		계	176.86	17.52	173.86	23.11	166.28	18.91

하면 <표 1>과 같다.

<표 1>에 나타난 아동의 자기능력지각점수가 아동의 연령, 성별, 사회측정적지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삼원변량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자기능력 지각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연령($F=9.08, p<.001$), 성별($F=5.58, p<.05$), 그리고 사회측정적지위($F=10.30, p<.001$)에 대한 주효과가 있었고, 연령과 사회측정적 지위에 대한 상호작용효과($F=2.46, p<.05$)가 있었다. 하위 집단간 차이를 보기 위해 Duncan사후검증 한 결과, 국민학교 3학년과 중학교 2학년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즉, 국민학교 3학년 아동이 자기능력을 가장 높이 지각하였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기능력을 낮게 지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가 여아보다 자기능력을 높이 지각하였다. 연령과 사회측정적지위에 대한 상호작용효과를 알아본 결과 인기가 배척아, 고립아보다 자기능력을 높이 지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대체로 연령이 낮을수록 자기능력을 높이 지각하였는데, 인기와 배척아, 고립아간의 차이는 연령이 낮을수록 더 크게 나타났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 차이는 줄어들었다.

다음으로, 각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학업영역에서는 연령 ($F=6.63, p<.01$)과 사회측정적지위($F=7.48, p<.001$)의 주효과가 있었고, 상호작용효과는 없었다. 하위 집단간 차이를 보기 위해 Duncan사후검증

〈표 2〉 아동의 연령, 성별, 사회측정적지위에 따른 아동의 자기능력지각의 삼원변량분석 결과

	source	df	MS	SS	F
학업 영역	연령	2	84.34	168.68	6.63**
	성	1	3.46	3.46	.27
	사회측정적 지위(ps)	2	95.07	190.13	7.48***
	연령 x 성	2	4.74	9.48	.37
	연령 x ps	4	16.82	67.27	1.32
	성 x ps	2	7.36	14.71	.58
	연령 x 성 x ps	4	6.47	25.89	.51
	오차	108	12.72	1373.49	
사회적 영역	연령	2	19.46	38.92	1.64
	성	1	22.73	22.73	1.91
	사회측정적 지위(ps)	2	131.56	263.13	11.06***
	연령 x 성	2	29.18	58.36	2.45
	연령 x ps	4	10.05	40.21	.85
	성 x ps	2	3.50	6.99	.29
	연령 x 성 x ps	4	35.93	143.71	3.02*
	오차	108	11.90	1284.67	
신체적 영역	연령	2	64.45	128.91	5.02**
	성	1	86.21	86.21	6.71**
	사회측정적 지위(ps)	2	71.11	142.22	5.53**
	연령 x 성	2	2.50	5.01	.20
	연령 x ps	4	33.90	135.60	2.64*
	성 x ps	2	3.62	7.23	.28
	연령 x 성 x ps	4	9.87	39.47	.77
	오차	108	12.85	1387.85	
운동적 영역	연령	2	21.82	43.64	1.27
	성	1	247.82	247.82	14.46***
	사회측정적 지위(ps)	2	32.58	65.16	1.90
	연령 x 성	2	31.49	62.97	1.11
	연령 x ps	4	8.37	33.46	1.84
	오차	108	17.14	1851.42	
행동적 영역	연령	2	17.48	34.87	2.23
	성	1	2.59	2.59	.33
	사회측정적 지위(ps)	2	25.35	50.70	3.24*
	연령 x 성	2	1.13	2.53	.14
	연령 x ps	4	13.20	52.78	1.69
	성 x ps	2	.66	1.32	.84
	연령 x 성 x ps	4	18.45	73.80	2.36
	오차	108	7.82	844.02	
전반적인 자아가치 영역	연령	2	124.22	248.44	14.33***
	성	1	5.41	5.41	.62
	사회측정적 지위(ps)	2	45.09	90.18	5.20**
	연령 x 성	2	4.83	9.66	1.41
	연령 x ps	4	20.23	80.91	.56
	성 x ps	2	4.28	8.56	2.33
	연령 x 성 x ps	4	5.06	20.22	.49
	오차	108	8.67	936.24	.58
전체 영역	연령	2	1703.39	3406.78	9.08***
	성	1	1047.92	1047.92	5.58*
	사회측정적 지위(ps)	2	1932.14	3864.28	10.30***
	연령 x 성	2	85.81	171.61	.46
	연령 x ps	4	461.53	1846.11	2.46*
	성 x ps	2	81.39	162.78	.43
	연령 x 성 x ps	4	215.74	862.96	.43
	오차	108	187.66	20266.88	1.15

* p<.05 ** p<.01 *** p<.001

한 결과, 국민학교 3학년과 중학교 2학년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즉, 연령이 낮을수록 자기능력을 높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기아와 배척아, 고립아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즉, 인기아가 배척아나 고립아보다 학업에 있어 자기능력을 높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영역에서는 사회측정적지위($F=11.06, p<.001$)의 주효과가 있었고, 연령과 성별, 사회측정적지위의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F=3.02, p<.05$). 하위집단간 차이를 보기 위해 Duncan사후검증 한 결과, 인기아와 배척아, 고립아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즉, 인기아가 배척아나 고립아보다 자기능력을 높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영역에서는 연령($F=5.02, p<.01$), 성별($F=6.71, p<.01$), 사회측정적지위($F=5.53, p<.01$)의 주효과가 있었고, 연령과 사회측정적지위에 대한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F=2.64, p<.05$). 하위집단간 차이를 보기 위해 Duncan사후검증 한 결과, 국민학교 3학년과 중학교 2학년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신체적영역에서도 연령이 낮을수록 자기능력을 높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기아가 배척아나 고립아보다 자기능력을 높이 지각하였고, 남아가 여아보다 자기능력을 높이 지각하였다. 연령과 사회측정적지위에 대한 상호작용효과를 알아본 결과 인기아가 대체로 배척아나 고립아보다 자기능력을 높이 지각하였는데, 이러한 차이는 연령이 낮을수록 더 크게 나타났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 차이는 줄어들었다.

운동적영역에서는 성별($F=14.46, p<.001$)의 주효과가 있었고, 상호작용효과는 없었다. 남아가 여아보다 자기능력을 높이 지각하였다.

행동적영역에서는 사회측정적지위($F=3.24, p<.05$)의 주효과가 있었고, 상호작용효과는 없었다. 하위집단간 차이를 보기 위해 Duncan사후검증 한 결과, 인기아와 배척아, 고립아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인기아가 배척아나 고립아보다 자기능력을 높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자아가치영역에서는 연령($F=14.33, p<.001$)과 사회측정적지위($F=5.20, p<.01$)의 주효과가 있었고, 상호작용효과는 없었다. 하

위집단간 차이를 보기 위해 Duncan사후검증 한 결과, 국민학교 3학년, 6학년과, 중학교 2학년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즉, 국민학교 3학년 아동과 6학년 아동이 중학교 2학년 아동보다 자기능력을 높이 지각하였다. 또, 인기아와 배척아, 고립아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인기아가 배척아나 고립아보다 자기능력을 높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아동의 연령, 성별, 사회측정적지위에 따른 부모의 책임지각

1) 아동의 연령, 성별, 사회측정적지위에 따른 모의 책임지각

모의 책임지각이 아동의 연령, 성별, 사회측정적지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아동능력에 대한 모의 책임지각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제시하면 <표 3>과 같다. 지면상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사회적영역, 신체적영역, 행동적영역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제시하지 않았다.

모의 책임지각이 아동의 연령, 성별, 사회측정적지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삼원변량분석한 결과는 <표 4>과 같다. 모의 책임지각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주효과는 없었고, 연령과 사회측정적지위의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F=2.95, p<.05$). 아동의 연령과 사회측정적지위에 대한 상호작용효과를 알아본 결과 국민학교 3학년과 6학년에서는 배척아의 어머니가 책임을 가장 높이 지각하고, 인기아 어머니, 고립아 어머니 순으로 책임을 높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학교 2학년에서는 고립아의 어머니가 책임을 가장 높이 지각하고, 인기아 어머니, 배척아 어머니 순으로 책임을 높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기아, 배척아, 고립아 어머니들의 책임지각간의 차이는 아동의 연령이 낮을 때는 차이가 크지 않다가 아동의 연령이 높을수록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각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학업영역 책임지각에서는 주효과는 없었고, 연령과 사회측정적지위에 대한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F=2.70, p<.05$). 연령과 사회측정적지위에 대한 상호작용효과를 알아

〈표 3〉 아동능력에 대한 모의 책임지각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

(N=126)

사회계층적지위			인기아(42)		배척아(42)		고립아(42)	
하위영역	연령	성별	M	SD	M	SD	M	SD
학업영역	국3	남(21)	13.57	2.88	12.17	.98	13.50	3.55
		여(21)	14.71	2.06	15.25	2.55	13.17	1.17
		계	28.28	4.94	27.42	3.53	26.67	4.72
	국6	남(21)	12.43	1.13	14.29	2.29	13.00	2.65
		여(21)	13.29	2.29	14.00	3.70	11.71	3.77
		계	25.72	3.42	28.29	5.99	26.71	6.42
	중2	남(21)	12.00	2.77	13.14	1.22	15.00	2.08
		여(21)	13.14	1.07	11.86	1.46	14.00	1.83
		계	25.14	3.84	25.00	2.68	29.00	3.91
운동적영역	국3	남(21)	11.14	2.27	13.50	1.05	11.50	2.33
		여(21)	12.57	4.04	13.13	1.25	12.33	1.63
		계	23.71	6.31	26.63	2.30	23.83	3.96
	국6	남(21)	11.00	1.83	10.86	3.44	10.00	2.70
		여(21)	12.14	1.46	11.00	4.32	11.43	3.51
		계	23.14	3.29	21.86	7.76	21.43	6.21
	중2	남(21)	12.57	2.88	11.86	1.22	14.86	1.86
		여(21)	13.29	2.98	13.14	1.46	12.00	1.91
		계	25.86	5.86	25.00	2.68	26.86	3.77
전반적인 자아가치 영역	국3	남(21)	14.57	2.23	16.00	1.79	16.50	2.00
		여(21)	17.14	1.46	17.25	1.98	15.83	1.47
		계	31.71	3.69	32.25	3.77	32.33	3.47
	국6	남(21)	16.14	.90	17.29	2.93	14.86	2.79
		여(21)	15.57	1.62	15.71	4.75	13.57	3.65
		계	31.71	2.52	33.00	7.68	28.43	6.44
	중2	남(21)	15.00	1.63	15.29	1.80	16.86	1.68
		여(21)	15.57	2.15	16.00	1.73	17.29	1.70
		계	30.57	3.78	31.29	3.53	34.15	3.38
전체영역	국3	남(21)	81.29	10.61	85.00	6.42	85.63	12.65
		여(21)	89.00	7.70	92.50	9.02	84.50	8.69
		계	170.29	18.31	177.50	15.44	170.13	21.34
	국6	남(21)	80.43	1.51	87.43	16.66	78.00	14.22
		여(21)	84.57	3.74	83.00	21.32	74.00	18.38
		계	165.00	5.25	170.43	37.98	152.00	32.60
	중2	남(21)	82.57	8.87	80.86	6.72	93.43	6.85
		여(21)	86.14	8.73	80.86	9.17	88.29	6.78
		계	168.71	17.60	161.72	15.89	181.72	13.63

〈표 4〉 아동의 연령, 성별, 사회측정적지위에 따른 모의 책임지각의 삼원변량분석 결과

	source	df	MS	SS	F
학업영역 책임지각	연령	2	6.06	12.11	1.03
	성	1	1.73	1.73	.30
	사회측정적 지위(ps)	2	1.17	2.34	.20
	연령 x 성	2	8.94	17.87	1.55
	연령 x ps	4	15.50	62.00	2.70*
	성 x ps	2	10.17	20.35	1.77
	연령 x 성 x ps	4	5.04	20.17	.88
	오차	108	5.75	620.88	
	운동적 영역 책임지각	연령	2	38.60	77.19
성		1	6.47	6.47	1.00
사회측정적 지위(ps)		2	.49	.98	.08
연령 x 성		2	4.08	8.15	.63
연령 x ps		4	7.09	28.37	1.10
성 x ps		2	4.44	8.89	.69
연령 x 성 x ps		4	8.86	35.42	1.37
오차		108	6.46	697.42	
전반적인 자아가치 영역 책임지각		연령	2	5.88	11.76
	성	1	.81	.81	.15
	사회측정적 지위(ps)	2	4.23	8.47	.08
	연령 x 성	2	13.97	27.94	2.63
	연령 x ps	4	15.09	60.37	2.84*
	성 x ps	2	4.83	9.67	.91
	연령 x 성 x ps	4	2.67	10.68	.50
	오차	108	5.32	574.33	
	전 체 책 임	연령	2	323.87	647.73
성		1	31.31	31.31	.25
사회측정적 지위(ps)		2	16.42	32.84	.13
연령 x 성		2	113.42	226.83	.92
연령 x ps		4	363.44	1453.76	2.95*
성 x ps		2	191.53	383.06	1.56
연령 x 성 x ps		4	22.39	89.57	.18
오차		108	123.14	11299.38	

* p<.05 ** p<.01

본 결과 국민학교 3학년에서는 인기아, 배척아, 고립아 어머니 순으로 책임지각을 높이 하였고, 국민학교 6학년에서는 배척아, 인기아, 고립아 어머니 순으로, 중학교 2학년에서는 고립아, 인기아, 배척아 어머니 순으로 책임지각을 높이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인기아, 배척아, 고립아 어머니들의 책임지각간의 차이는 아동의 연령이 낮을때는 차이가 크지 않다가 아동의 연령이 높을수록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학업영역에서는 모의 책임지각이 아동의 연령과 사회측정적지위에 따라 많이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다.

운동적영역 책임지각에서는 연령($F=5.98, p<.01$)의 주효과가 있었고, 상호작용효과는 없었다. 하위 집단간 차이를 보기 위해 Duncan사후검증 한 결과, 국민학교 6학년 아동의 어머니와 국민학교 3학년 아동의 어머니, 중학교 2학년 아동의 어머니들이 국민학교 6학년 아동의 어머니보다 책임을 높이 지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자아가치영역 책임지각에서는 주효과는 없었고, 연령과 사회측정적지위에 대한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F=2.84, p<.05$). 연령과 사회측정적지위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본 결과 인기아 어머니나 배척아 어머니는 국민학교 3학년과 국민학교

6학년에서 별 차이없이 책임지각을 하다가, 중학교 2학년에서 책임을 조금 낮게 지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고립아 어머니는 국민학교 6학년 때 책임을 가장 낮게 지각하고, 중학교 2학년에서는 책임을 가장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기아, 배척아, 고립아 어머니들의 책임지각간의 차이는 아동의 연령이 낮을때는 차이가 크지 않다가 아동의 연령이 높을수록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사회적영역, 신체적영역, 행동적영역 책임지각에서는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가 둘 다 나타나지 않았다.

2) 아동의 연령, 성별, 사회측정적지위에 따른 부의 책임지각

부의 책임지각이 아동의 연령, 성별, 사회측정적지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내고, 삼원변량분석한 결과, 사회적영역 책임지각에서만 연령($F=3.85, p<.05$)의 주효과가 있었고, 나머지영역에서는 주효과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주효과가 나타난 사회적영역 책임지각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면 <표 5>과 같다.

<표 5>에 나타난 부의 사회적영역 책임지각점수가 아동의 연령, 성별, 사회측정적지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삼원변량분석한 결

<표 5> 부의 사회적영역 책임지각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

(N=126)

사회측정적 지위			인기아(42)		배척아(42)		고립아(42)	
하위영역	연령	성별	M	SD	M	SD	M	SD
사회적영역 책임지각	국3	남(21)	13.86	1.86	13.67	2.25	11.50	2.39
		여(21)	12.86	2.54	13.25	2.12	13.33	4.18
		계	26.72	4.40	26.92	4.37	24.83	6.57
	국6	남(21)	12.43	.53	12.14	2.12	11.14	2.34
		여(21)	11.43	.53	10.71	4.31	11.71	.76
		계	23.86	1.06	22.85	6.43	22.85	3.01
중2	남(21)	10.14	2.34	12.00	2.94	13.14	1.46	
	여(21)	13.43	2.15	11.43	2.30	14.29	2.06	
	계	23.57	4.49	23.43	5.24	27.43	3.52	

(표 6) 아동의 연령, 성별, 사회측정적지위와 부의 사회적영역 책임지각의 삼원변량분석 결과

	source	df	MS	SS	F
사회적영역	연령	2	21.56	43.11	3.85*
	성	1	3.05	3.05	.54
	사회측정적 지위(ps)	2	.96	1.91	.17
	연령 x 성	2	9.67	19.34	1.73
책임지각	연령 x ps	4	11.79	47.16	2.11
	x ps	2	10.50	20.99	1.88
	연령 x 성 x ps	4	7.09	28.36	1.27
	오차	108	5.60	604.45	

* p<.05

과는 <표 6>와 같다.

<표 6>를 보면, 사회적영역 책임지각에서 연령 ($F=3.85$, $p<.05$)의 주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위집단간의 차이를 보기 위해 Duncan사후검증한 결과, 국민학교 3학년 아동의 아버지와 국민학교 6학년 아동의 아버지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즉, 국민학교 3학년 아동의 아버지가 국민학교 6학년 아동의 아버지보다 사회적영역에서 책임을 높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이 3학년일 때에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자녀가 어떻게 사회화되어가는 지에 아버지의 관심이 주어지다가 국민학교 6학년이 되면 이 시기가 비교적 여러면에서 안정된 시기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관심을 덜 가지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3. 부, 모의 책임지각 간의 차이검증과 상관관계

부와 모의 책임지각 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에서 부의 책임지각과 모의 책임지각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부와 모가 책임을 비슷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와 모의 책임지각간의 상관을 살펴보기 위해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에서 부의 책임지각과 모의 책임지각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부의 전체 책임지각과 모의 전체 책임지각에서 $r=.46$ ($p<.001$)의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하위영역별로 살

(표 7) 부와 모의 책임지각 간의 차이검증

	명	학업 영역	사회적 영역	운동적 영역	신체적 영역	행동적 자아가치	전반적인 책임지각	전체 책임지각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부	126	13.38 (2.19)	12.34 (2.48)	12.57 (2.40)	14.83 (3.01)	16.02 (2.40)	16.33 (2.34)	35.43 (10.77)
	126	13.37 (2.46)	12.37 (2.5)	12.12 (2.63)	14.77 (2.71)	15.81 (2.56)	15.93 (2.37)	34.37 (11.38)
t		-.04	.15	-1.40	-.23	-.84	-1.79	-1.03

〈표 8〉 부와 모의 책임지각 간의 상관관계

부	모	학업	사회	운동	신체	행동	전반적 자아가치	전체
학업영역		.42***	.31***			.26***	.37***	
사회적영역		.28***	.53***	.25***	.21***	.31***	.36***	
운동적영역		.21***	.32***	.17***	.30***	.20***	.31***	
신체적영역					.41***		.21***	
행동적영역		.25***	.26***		.21***	.33***	.34***	
전반적인 자아가치		.28***	.18***		.27***	.34***	.44***	.46***
전체 책임지각 (total)								

*p<.05 **p<.01 ***p<.001

퍼본 결과, 대부분의 영역간에 높은 정적상관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부, 모의 학업영역 책임지각간에는 $r=.42(p<.001)$, 사회적영역 책임지각간에는 $r=.53(p<.001)$, 운동적영역 책임지각간에는 $r=.17(p<.05)$, 신체적영역 책임지각간에는 $r=.41(p<.001)$, 행동적영역 책임지각간에는 $r=.33(p<.001)$, 전반적인 자아가치영역 책임지각간에는 $r=.44(p<.001)$ 로, 운동적영역을 제외한 모든영역에서 부, 모의 책임지각은 같은 영역간에 $r=.33\sim.53(p<.001)$ 으로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부가 책임을 높게 지각하는 영역에서는 모도 책임을 높게 지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결과를 보면, 부의 책임지각과 모의 책임지각간에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부의 책임지각과 모의 책임지각간에 상관성이 높고, 특히 같은 영역간에 상관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국민학교 3학년, 6학년, 중학교 2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아동의 자기능력지각과 부모의 책임지각이 아동의 연령, 성별, 사회측정적지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고, 부와 모의 책임지각간의 관계는 어떠한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연령, 성별, 사회측정적지위에 따라 아동의 자기능력지각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보았을 때, 연령이 낮을수록 자기능력을 높이 지각하였고, 남아가 여아보다, 그리고 인기가가 배척아, 고립아보다 자기능력을 높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학업영역, 신체적영역, 전반적인 자아가치영역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자기능력을 높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린아동들은 대체로 자신의 능력에 대해 또래보다 높게 평가하다가 점차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신에 대한 평가가 낮추어지며 자신과 또래간의 차이도 줄어들고 한 Stipek(198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신체적영역, 운동적영역에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자기능력을 높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치영(1987)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서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남자 아동이 새로운 게임에 적극 참여하고 쉽게 운동활동을 익힐 수 있다고 지각하고 있으며, 또한 자신의 신체적 조건인 키, 몸무게, 얼굴, 머리카락등 자기의 외모에 만족하고 있었다. 이는 운동적영역이 남자아동들에 있어서 여자아동들보다 우세한 영역이고, 여자아동들은 정적인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신체적 영역에서도 성차가 나타나는데, 우리나라 남자아동이 자신의 신체적 조건에 대해 여자

아동보다 신경을 덜 쓰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겠다.

학업영역, 사회적영역, 신체적영역, 행동적영역, 전반적인 자아가치영역에서 인기가가 배척아나 고립아보다 자기능력을 높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적영역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비인기아동은 인기아에 비해 자신의 능력을 낮게 보고한다고 한 Harter(1982)의 연구결과와 일치된다. 급우로부터 인정을 받게 된 아동, 즉 인기아들은 타인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내적 확실성 때문에 자기 자신을 가치있게 생각하고, 자신에게 만족하며 대체로 긍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게 되는 반면, 비인기아동들은 급우로부터 회피를 당하거나 따돌림을 받고 있다는 의식으로 인해 부정적 자아개념이 형성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아동의 연령, 성별, 사회측정적지위에 따라 모의 책임지각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 보았을 때, 학업영역, 운동적영역, 전반적인 자아가치영역에서만 책임을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영역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모의 책임지각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국민학교 3학년과 6학년에서는 배척아의 어머니가 책임을 가장 높이 지각하고, 인기아어머니, 고립아어머니 순으로 책임을 높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학교 2학년에는 고립아의 어머니가 책임을 가장 높이 지각하고 인기아어머니, 배척아어머니 순으로 책임을 높이 지각하였다. 이는 적응에 문제를 보이는 아동의 어머니가 책임도 높이 지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학업영역에서는 국민학교 3학년에서 인기아, 배척아, 고립아어머니 순으로 책임을 높이 지각하였고, 국민학교 6학년에서는 배척아, 인기아, 고립아어머니 순으로, 중학교 2학년에서는 고립아, 인기아, 배척아어머니 순으로 책임을 높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학업영역에서는 모의책임지각이 아동의 연령과 사회측정적지위에 따라 많이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운동적 영역에서는 국민학교 3학년 아동의 어머니와 중학교 2학년 아동의 어머니들이 국민학교 6학년 아동의 어머니보다 책임을 높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국민학교 3학년과 중학교 2학년 시절보다 국민학교 6학년 시절은 비교적 안정된 발달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책임을 덜 지각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질 수 있다.

전반적인 자아가치영역에서는 인기아 어머니나 배척아어머니는 국민학교 3학년과 국민학교 6학년에서는 별 차이없이 책임지각을 하다가 중학교 2학년에서 책임을 조금 낮게 지각하였다. 그러나 고립아어머니는 국민학교 6학년에 책임을 가장 낮게 지각하고 중학교 2학년에서는 책임을 가장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가 책임을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영역들에 있어서 인기아, 배척아, 고립아어머니들의 책임지각간의 차이는 아동의 연령이 낮을때는 차이가 크지 않다가 아동의 연령이 높을수록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이는 아동이 어릴때는 특성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다가 연령이 높아질수록 인기아, 배척아, 고립아의 특성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문제행동을 보이는 배척아, 고립아의 어머니들이 책임을 많이 느끼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모든 영역에 있어서 아동능력에 대한 모의 책임지각은 성별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남아선호사상이 있어서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할 때, 남아에게 더 많은 책임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일반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오늘날에는 남아, 여아 구별없이 어머니가 책임을 같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아동의 연령, 성별, 사회측정적지위에 따라 부의 책임지각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보았을 때, 사회적영역 책임지각에서만 국민학교 3학년 아동의 아버지가 국민학교 6학년 아동의 아버지보다 사회적영역에서 책임을 높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영역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자녀양육에 있어 아버지들의 주관심이 사회적영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된다. 또한 아동이 3학년일 때에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자녀가 어떻게 사회화되어 가는지 아버지들의 관심이 주어지다가 국민학교 6학년이 되면 이 시기가 비교적 여러면에서 안정된 시기이기 때문

에 아버지가 관심을 덜 가지게 되는 것으로 해석되어 질 수 있다.

넷째, 부와 모의 책임지각간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살펴 본 결과, 부와 모의 책임지각간에는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부의 책임지각과 모의 책임지각간에 $r=.33\sim.53(p<.,001)$ 으로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부가 책임을 높게 지각하는 영역에서는 모도 책임을 높게 지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자녀에 대한 책임부분이 모에게 지워진다고 생각했던 과거 전통적 사고방식에서 많이 벗어나 부, 모가 모두 자녀의 성장, 발달에 관해서 사고나 인식이 다르지 않고 동일하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한점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원변량분석을 시도하다 보니 하위 집단내에 속해있는 사례수가 줄어들었다.

추후연구를 위해 몇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Dodge와 Frame(1982) 및 French(1988)는 배척된 집단의 아동들이 동질적이지 않고 서로 다른 행동양식을 보이므로 다른 종류의 어려움을 경험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배척된 집단을 행동양식에 따라 일시적인 하위집단으로 구분하여 연구하지 못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배척된 아동의 행동양식과 자아지각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아동의 자기능력지각과 부모, 교사의 아동능력에 대한 평가간의 일치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도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 1) 김치영(1987). 아동의 역량에 대한 자기지각과 학업성취.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2) Adams, K.A., & Davis, L.V.(1978). The father's perception of his role and the child's development. *Research in Education*, ED. 177-306.
- 3) Boivin, M., & Bégin, G.(1989). Peer Status and self-perception among early elementary school children ; The case of the rejected children. *Child Development*, 60, 591-596.
- 4) Block, J.H., & Others.(1983). Parental agreement-disagreement on child rearing orientation and gender-related personality correlates in children. *Research in Education*. ED. 182-292.
- 5) Coie, J.D., Dodge, K.A., Coppotelli, H.(1982). Dimensions and types of social status ; A cross age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18, 557-570.
- 6) Coopersmith, S.(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 W. H., Freeman and Co., Publisher.
- 7) Dix, T., & Grusec, J.E.(1985). Parent attribution process in the socialization of children. In I.E. Sigel (Ed.) *Parental Belief*(pp. 201-233). Hillsdale, NJ ; Erlbaum.
- 8) Dodge, K.A. & Frame, C.L.(1982). Social cognitive biases and deficits in aggressive boys. *Child Development*, 53, 620-635.
- 9) Festinger, L.(1954). A theory of social comparison processes, *Human Relations*, 117, -140.
- 10) Ford, M.E.(1982). Social cognition and social competence in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18, 323-340.
- 11) French, D.C.(1987). Social-cognitive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peerrejected boys. *Professional School Psychology*, 2, 103-112.
- 12) Gilbert, L.A., Hanson, G.R., & Davis, B.(1982). Perceptions of parental role responsibilities among working people ; Development of a comprehensive measur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February, 203-212.
- 13) Goodnow, J.J.(1985). Change and variation in parents' ideas about childhood and parenting. In I.E. Sigel(Ed.), *Parental Belief Systems*(pp. 235-270), Hillsdale, N.J. ; Erlbaum.
- 14) Goodnow, J.J.(1988). Parents' ideas, actions, and

- feelings ; Models and methods from developmental and social psychology. *Child Development*, 59, 286-320.
- 15) Harter, S.(1982).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Child Development*, 53, 87-97.
- 16) Harter, S.(1985). Manual for self 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 University of Denver.
- 17) Harter, S.(1988). Developmental processes in the construction of the self. In T. D. Yawkey, & J. E. Johnson(Eds.), *Integrative Processes and Socialization Early to Middle Childhood*. Hillsdale, N.J. : Lawrence Erlbaum.
- 18) Hymel, S., Rubin, K.H.(1985). Children with peer relationship and social skills problems ; conceptual, methodological developmental issues. In G.J. Whitehurst (Ed.) *Annals of Child Development*, 2, Greenwich, CT : JAI Press.
- 19) Maccoby, E.E., & Jacklin, C.N.(1974). *The Psychology of Sex Difference*. Stanford University Press.
- 20) Main, M., & Weston, D.R.(1981). The quality of the toddler's relationships to mother and to father ; Related to conflict behavior and the readiness to establish new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52, 932-940.
- 21) Marsh, H.W., Smith, I.D., & Barnes, J.(1985). Multitraitmultimethod analysis of the self-description questionnaire ; Student-teacher agreement on multidimensional ratings of student self-concept.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20, 333-357.
- 22) Meece, J.L. , Parsons, J.E., Kaczala, C.M., Goff, S.B., & Futterman, R.(1985). Sex differences in math achievement ; Toward a model of academic choice. *Psychological Bulletin*, 91, 324- 348.
- 23) Miller, S.A.(1988). Parents' beliefs about children's cognitive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59, 259-285.
- 24) Nicholls, J.G.(1978). The development of the concepts of effort and ability, perception of academic attainment, and the understanding that difficult tasks require more ability, *Child Development*, 49, 800-814.
- 25) Nye, F. Ivan.(1976). *Role structure and analysis of the family*. Beverly Hills, CA ; Sage.
- 26) Parke, R., & O'Leary, S.(1975). Father-mother-infant interaction in the newborn period ; Some findings, some observations and some unresolved issues. In K. Regeland and J. Meacham(Eds.), *The developing individual in a changing world*, 2, Social and Environmental Issues. The Hague Mortion.
- 27) Patterson, C.J., Kupersmidt, J.B., & Griesler, P. C.(1990). Children's perceptions of self and of relationships with others as a function of sociometric status. *Child Development*, 61, 1335-1349.
- 28) Rosenberg, M.J.(1963). Parental interest and children's self-conceptions. *Sociometry*, 26, 20-31.
- 29) Ruble, D.N.(1983). The development of social-comparison processes and their role in achievement-related self-socialization. In E.T. Higgins, D.N. Ruble, & W. W. Hartup(Eds.), *Social Cognition and Social Development ; A Sociocultural perspective*, 134-157,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30) Sigel, I.E.(Ed.), *Parental Belief Systems ;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for children*. Hillsdale, N.J. ; Erlbaum.
- 31) Stigler, J. W., Smith, S, & Lian-wen MaO. (1985). The self-perception of competence by chinese children. *Child Development*, 56, 1259-1270.
- 32) Stipek, D.J.(1981). Children's perceptions of their own and their classmate's ability.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3, 404-410.
- 33) Stipek, D.J., & Tannatt, L.M.(1984). Children's judgements of their own and their peers' academic competenc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6, 75-84.